

##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self-efficacy, verbal control style and child's peer interaction,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김현지(Kim, Hyoun Ji)\* · 전경아(Jeon, Kyung Ah)\*\*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J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5곳의 만 4~5세 유아 212명이며,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유아들에게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지위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인성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

\* 제1저자: 전북과학대학 복지계열 교수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수료, tomkidjka@naver.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태어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모에서 점차 친구, 교사 등으로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하는 환경 또한 가족에서 또래집단, 교육기관 등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유아가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성 발달이 중요해졌다. 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또래상호작용은 유아가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초보적 사회 활동의 원천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 유아 상호간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거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Rubin, Bukowski, & Parker, 1998).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거나 긍정적인 언어로 상호작용할 때, 그 유아는 또래집단에 쉽게 수용되어 사회적 적응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유아기 이후의 학교적응 능력이 향상되며 학업성취 정도 또한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Howes & Leslie, 1998). 반면에 유아가 또래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할 경우, 유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이후 성인기에 이르면서 소극적인 인간관계를 맺거나 심하면 사회부적응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Parker & Asher, 1987).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반복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배척되는 경우, 그 유아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래에게 거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유아는 가족, 형제뿐만 아니라 또래, 교사 등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 어떻게 사회적 접촉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며 대인관계를 통해 삶의 양식을 익히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가 여러 문제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속에서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원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대인관계의 시작이나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Piaget(1970)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자아의 성격과 발달에서 자기중심성의 감소, 탈중심화 기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통해 유아는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의도나 느낌을 의식하게 되는 상호성이 발달됨으로써 안정된 성격발달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하면 부적응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성장과 발달의 저해가 된다. 즉 대인관계의 결함으로 유아기에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면 이로 인한 부적응은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Parker & Asher, 1987).

대인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은 사회·인지능력의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호경, 신인숙, 2004).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능력의 발달은 유아기의 주요발달 과업으로 간주되며, 대인간의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유아가 타인과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문제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대인문제 해결력은 유아의 사회적 적응뿐 아니라(성미영, 2005) 이후의 원만한 삶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는 갈등·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여 문제 해결의 결과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유아들이 대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유아들의 사회 적응도는 달라지므로 이러한 문제해결력은 사회적 적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김효정, 2004; 안정임, 2004; 임진, 2004)과 주변 환경 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어머니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일수록 유아가 또래에게 수용도가 높고, 친사회적·주도적이어서 대인문제해결 사고에 있어서 긍정적 해결 방안 수가 많았으며(손승희 2001; 유민임, 2006; 이선희 2000; Shaffer, 2000), 반면 제한과 규제가 많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유아는 구실이나 핑계, 회피 등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Jones et al, 1980),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인 경우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반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Liberman, 1977).

아동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

용인데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양친 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이 생후 최초로 관계를 형성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며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다른 어떤 요인에 비해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황혜자, 최윤희, 2003). 어머니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주며 후기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하나의 틀로 작용하게 될(장은경, 박은혜, 김희진, 1998)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자녀의 정서(Beksky, Goode, & Most, 1980), 언어(Holdgrafer & Dunst, 1986), 인지(Bernstein, 1989)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선희, 2001). 이제까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양육행동과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양육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신념, 가치, 목표, 효능감 등의 인지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문혁준, 2005).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최형성, 2002).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이다(Coleman & Karraker, 1997; 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Teti & Gelfand, 1991; 최형성, 2005 재인용).

양육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또한 자녀의 발달에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어머니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모델로서 동일시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정서가 적절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또한 어머니는 자녀를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켜 인간으로서 참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제 유형을 지니려 할 것이다(이영옥, 2003). 김진숙(1995)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자녀의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언어를 통해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의 경우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부모의 언어적 통제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언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김리은, 1997).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의 기능과 함께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여가, 1997).

이러한 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목

표,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인 양육효능감과 같은 개인 내적인 인지적 측면인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력, 언어통제유형이 자녀의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조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방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취업유무, 유아성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연령, 학력, 취업유무, 유아성별)에 따라 차이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5곳의 만 4~5세 유아 2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해 직접 방문하여 만 4~5세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유아들에게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유아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들 어머니에게 전달하여 어머니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총 212부중 192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성별	남	112	58.3	어머니	35세 이하	112	58.3
	여	80	41.7	연령	36세 이상	80	41.7
출생순위	첫째	112	58.3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76	39.6
	둘째	60	31.3		전문대졸	48	25.0
	셋째이상	20	10.4		대졸이상	68	35.4
자녀수	1명	48	25.0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유	140	72.9
	2명	108	56.3		취업무	52	27.1
	3명이상	36	18.8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측정도구

본 연구의 정서표현력 측정도구는 Halberstadt(1995)가 개발한 정서표현척도(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김호정(2002)의 정서표현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다. 정서표현력 척도는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23문항과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어머니의 정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정서표현은 .89, 부정적 정서표현은 .91이다.

###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

본 연구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이승미(2004)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생각을 기입하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6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문항, 의사소통 능력 3문항, 학습지도능력 3문항, 훈육능력 3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약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전반적인 양육능력 .84,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66, 의사소통능력 .61, 학습지도능력 .68, 훈육능력 .73 양육효능감 .89이다.

### 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측정도구

본 연구의 언어통제유형 측정도구는 Bernstein(1971)과 Gumperz(1973)의 정의에 근거하여 이경희(1994)가 작성한 언어통제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와 가깝고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입하는 자기보고식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명령적 통제 25문항, 지위적 통제 25문항, 인성적 통제 25문항의 총 7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항상 사용하는 편이다' 5점,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4점,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드물게 사용한다' 2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하위영역 언어통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명령적 통제 .91, 지위적 통제 .93, 인성적 통제 .91이다.

### 4)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측정도구

본 연구의 또래상호작용 측정도구는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antt와 Sutton-Smith(1998)의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혜영(2004)의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척도(교사용)를 사용하였다. 또래상호작용 척도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8문항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행동 1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는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에 유아가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행동을 근거로 응답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척도로 '항상 그렇다' 4점, '자주 그렇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별 아동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88,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94, 또래상호작용 전체는 .89이다.

### 5)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 측정도구

본 연구의 대인문제해결력 측정도구는 박찬옥(1986)이 제시한 유아의 대인문제해결 검사틀 토대로 이경희(2009)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대인문제해결사고 측정도구

를 사용하였다. 대인문제해결력 검사문항은 2문항이며, 각 문항에 5회까지 반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에게 <표 2>와 같이 가설적 문제를 제시하여 유아들이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5회까지 기록하여 각 내용을 반응 범주에 따라 분류한 후 해결방안에 속하는 것,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 것, 열거에 그치는 것, 반복된 것 등으로 구분하여서 해결방안에 속하는 반응에 대해서만 1점씩을 주었다. 한 문항당 총 5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2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대인문제해결사고 1]의 채점범주에서 해결방안에 속하는 반응은 요청, 설득, 순서제안, 기다림, 보상, 심리적 자극, 권위의존, 우정철회, 뇌물, 계책, 떼쓰기, 언어적 공격, 신체적 공격, 소유물손상의 반응내용이고, [대인문제해결사고 2]의 채점범주에서 해결방안에 속하는 반응은 승패주장, 실수지적, 전략, 설명, 공평, 재경기, 점수소거획득제안, 권위의존, 우정철회, 언어적 공격, 벌칙제안, 신체적 공격이며, 이러한 반응들은 각 1점을 부과하였다. 비해결 방안에 속하는 반응은 관련된 목표(엄마한테 팽이 사달라고 해요, 다른 것 담아요 등), 대체목표(다른 놀이 하자고 해요, 할 수 없이 포기해요 등), 무관련(모르겠어요 등)이며 이는 0점을 부과하였고, 열거에 그치거나 단순반복이면 이것 또한 0점을 부과하였다.

대인문제해결사고의 문항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인문제해결사고 검사 문항상황

영역	문항
사회적 과제	1. 친구들이 팽이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었어. 나도 하고 싶어서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했는데, 아이들이 “안 돼”하면서 끼워주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2. 바구니에 공을 담아서 먼저 돌아와야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공을 떨어뜨리고 먼저 들어와서 이겼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2.0을 사용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 및 F검증(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지위적 통제( $t=3.123, p<.01$ )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위적 통제 수준은 36세 이상 어머니보다 35세 이하 어머니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N=192)

		35세 이하 평균(S.D)	36세 이상 평균(S.D)	t값
정서 표현력	긍정적 정서표현	4.14(.47)	4.03(.47)	1.628
	부정적 정서표현	2.64(.62)	2.49(.62)	1.610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	3.83(.46)	3.72(.54)	1.522
언어 통제 유형	명령적 통제	1.79(.54)	1.85(.60)	-.759
	지위적 통제	2.73(.65)	2.41(.74)	3.123**
	인성적 통제	2.37(.64)	2.27(.63)	1.071

\*\* $p<.01$  \*\*\* $p<.001$

#####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 $F=10.722, p<.001$ ), 부정적 정서표현( $F=8.339, p<.001$ ), 양육효능감( $F=3.372, p<.05$ ), 지위적 통제( $F=13.828, p<.001$ ), 인성적 통제( $F=11.704, p<.001$ )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고졸이하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양육효능감에서는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는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이상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N=192)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F값
		평균(S.D)/D	평균(S.D)/D	평균(S.D)/D	
정서	긍정적 정서표현	3.96(.53)a	4.34(.52)b	4.07(.36)a	10.722***
표현력	부정적 정서표현	2.37(.51)a	2.62(.69)b	2.78(.63)b	8.339***
양육	양육효능감	3.69(.52)a	3.93(.058)b	3.80(.39)ab	3.372*
언어	명령적 통제	1.75(.62)	1.84(.47)	1.87(.56)	.832
통제	지위적 통제	2.37(.63)a	2.49(.75)a	2.93(.63)b	13.828***
유형	인성적 통제	2.12(.59)a	2.27(.48)a	2.60(.69)b	11.704***

D:Duncan, \*p<.05 \*\*p<.01 \*\*\*p<.001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t=6.815, p<.001), 지위적 통제(t=1.980, p<.05), 인성적 통제(t=2.807, p<.01)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수준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N=192)

		취업유 평균(S.D)	취업무 평균(S.D)	t값
정서 표현력	긍정적 정서표현	4.22(.43)	3.75(.41)	6.815***
	부정적 정서표현	2.58(.59)	2.58(.71)	-.055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	3.82(.51)	3.69(.46)	1.679
언어 통제 유형	명령적 통제	1.81(.58)	1.81(.54)	.061
	지위적 통제	2.66(.69)	2.43(.72)	1.980*
	인성적 통제	2.41(.61)	2.12(.66)	2.807**

\*p<.05 \*\*p<.01 \*\*\*p<.001

4) 유아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t=4.051, p<.001), 부정적 정서표현(t=-2.337, p<.05), 양육효능감(t=2.255, p<.05)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 양육효능감 수준은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남아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남아의 어머니들보다 여아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유아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차이

(N=192)

		남아 평균(S.D)	여아 평균(S.D)	t값
정서 표현력	긍정적 정서표현	4.21(.44)	3.94(.47)	4.051***
	부정적 정서표현	2.49(.49)	2.70(.76)	-2.337*
양육 효능감	양육효능감	3.86(.52)	3.69(.46)	2.255*
언어 통제 유형	명령적 통제	1.75(.53)	1.90(.60)	-1.892
	지위적 통제	2.56(.77)	2.65(.60)	-.822
	인성적 통제	2.32(.63)	2.347(.65)	-.287

\*p<.05 \*\*p<.01 \*\*\*p<.001

## 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t=2.089, p<.05$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t=2.810, p<.01$ ), 대인문제해결력( $t=2.265, p<.05$ )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은 36세 이상 집단보다 35세 이하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N=192)

		35세 이하 평균(S.D)	36세 이상 평균(S.D)	t값
또래 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2.76(.43)	2.60(.59)	2.089*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1.93(.64)	1.68(.52)	2.810**
대인문제해결력		3.36(1.21)	2.90(1.49)	2.265*

\* $p<.05$  \*\* $p<.01$

###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F=8.176, p<.001$ ), 대인문제해결력( $F=3.807, p<.05$ )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은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N=192)

		고졸이하 평균(S.D)/D	전문대졸 평균(S.D)/D	대졸이상 평균(S.D)/D	F값
또래 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2.68(.54)	2.65(.50)	2.76(.47)	.762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1.64(.50)a	2.06(.28)b	1.89(.80)b	8.176***
대인문제해결력		2.84(1.51)a	3.33(1.26)b	3.41(1.15)b	3.807*

D:Duncan, \*p<.05 \*\*\*p<.001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t=-2.709$ ,  $p<.01$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t=5.053$ ,  $p<.001$ )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보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수준의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N=192)

		취업유 평균(S.D)	취업무 평균(S.D)	t값
또래 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2.64(.47)	2.86(.56)	-2.709**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1.96(.61)	1.49(.43)	5.053***
대인문제해결력		3.20(1.29)	3.08(1.51)	.562

\*\*p<.01 \*\*\*p<.001

4) 유아 성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유아 성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t=-8.134$ ,  $p<.001$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t=5.952$ ,  $p<.001$ )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유아 성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의 차이

(N=192)

		남아 평균(S.D)	여아 평균(S.D)	t값
또래 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2.50(.50)	2.99(.34)	-8.134***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2.03(.58)	1.54(.52)	5.952***
대인문제해결력		3.29(1.34)	3.00(1.35)	1.453

\*\*\*p<.001

### 3.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언어통제유형,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은 인성적 통제,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정서표현은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명령적 통제, 양육효능감과 명령적 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의 관계

(N=192)

		정서표현력		언어통제유형			양육효능감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명령적 통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정서 표현력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017					
언어 통제 유형	명령적 통제	-.210**	.372***				
	지위적 통제	.100	.175*	.681***			
	인성적 통제	.281***	.189**	.503***	.841***		
양육효능감		.534***	.004	-.326***	.188	.089	

\*p<.05 \*\*p<.01 \*\*\*p<.001

#### 4.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은 대인문제해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N=192)

변인	또래상호작용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	-.024	.103

#### 5.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지위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인성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어머니 변인과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관계

(N=192)

변인	또래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정서 긍정적 정서표현	.483***	-.009	.325***
표현력 부정적 정서표현	.070	.264***	.211**
양육효능감	.245**	-.172*	.046
언어 명령적 통제	-.148*	.210**	.142*
통제 지위적 통제	.061	.165*	.162*
유형 인성적 통제	.195**	.115	.203**

\*p<.05 \*\*p<.01 \*\*\*p<.001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어머니의 실제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토대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중 어머니의 지위적 통제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나 태도를 보이는 즉, 특별한 시간, 장소, 상황에만 적용하는 기준에 중점을 두거나 유아의 성별, 나이 등에 중점을 두고 유아의 행동을 제한하는 지위적 통제 수준이 36세 이상 어머니보다 35세 이하 어머니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대의 어머니는 지위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20대, 30대 어머니는 인성 지향적 통제유형을 많이 사용한다(유혜영, 1999)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자녀로 하여금 지위, 위치 및 기준에 따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지위적 통제를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중재수단으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은 유아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환경의 중요한 질적 측면이며, 유아의 타인사고 추론능력(최연희, 1992), 대인문제해결 사고(유재은, 2002), 부적응(김정임, 2003), 공격성(박향숙, 1989),



또래유능성(이종각, 2009) 등과 관련되어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의 취업증가와 만혼의 증가로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의사소통과 언어통제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양육효능감,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서표현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표현은 고졸이하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 이상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가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보다 긍정적,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문신(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아동에게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효능감도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안지영, 2001; 정혜인, 2003; 서소정, 2004; 이승미, 2005; 최형성, 2005; 오미연, 2005)와 일치한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역할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아발달이나 학습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통제에 있어서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는 고졸이하 집단과 전문대졸이상 집단보다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있어서 대졸이상 집단이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나 태도를 보이는 지위적 통제와 유아가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인성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성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지위지향적, 명령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사용한다고 한 연구(최사라, 2001; 김정선, 2003; 김영주, 1999)와 같은 맥락이다. 부모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유아에게 유능한 대인관계기술을 가지도록 하며, 문체상황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찾게 하고, 유아에게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을 돕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건강한 방법적 기술들을 익히고 바람직한 언어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에서도 어머니에게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 지위적 통제, 인성적 통제 수준은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집단보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에 있어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 집단이 규칙을 강조하는 언어나 태도를 보이는 지위적 통제와 유아가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에 대한 판단과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인성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이 취업으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시간에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칙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결과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도록 훈육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언어통제유형이 차이가 없다(이송주, 2003; 이영옥, 2003; 임미영, 2003)라는 결과와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명령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하며 직업이 없는 경우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 유형을 많이 사용한다(유혜영, 1999)는 결과와 직업이 없는 경우 명령지향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김정선, 2003)의 결과와 상이하여 보다 연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점차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바람직한 언어적 통제를 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양육효능감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 양육효능감 수준은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남아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았고, 부정적 정서표현은 남아의 어머니들보다 여아의 어머니들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전반적으로 더 많이 정서를 표현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정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 정서사회화의 영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정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 남아의 분노나 공격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반응하며, 여아의 슬픔이나 불안 정서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연구결과(Chaplin, cole, & Zahn-Waxler, 2005)와 같이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로 이끄는 사회적 압력을 행사한다(Shie인, 2002; Zahn-Waxler, 2001). 그러므로 남자답게, 여자답게 자녀를 사회화하는 부분에서 어머니는 남아의 적극성, 활발함을 격려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 정서표현을 하고, 여아에게 규칙과 제한을 하는 훈육을 하여 보다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남아 부모의 효능감이 여아 부모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윤은미(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반대로 정혜인(2003)은 여아부모의 효능감이 남아부모의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공격성 및 부제행동 수준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 및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이 낮은 경향(정현희, 오미경, 2000; 안선희, 김선영, 2004) 등의 성차에 대한 부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성별에 대한 발달지식과 이에 기초한 적절한 상호작용과 양육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문제해결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연령, 취업유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36세 이상 집단보다 35세 이하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직업이 있는 어머니들보다 직업이 없는 어머니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상호작용의 연구결과는 최혜영(2004)이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 친사회적 행동이나 우호적인 언어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Phillipsen과 그의 동료들(1999)이 여아와 남아의 사회적 상호작용형태의 차이를 보고하면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남아들에게 보다 친사회성을 격려하기 위한 활동과 경험의 기회가 보다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36세 이상 집단보다 35세 이하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고졸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보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수준의 유의하게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은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적극적인 행동을 많이 하며, 여아는 표현적이고 순응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김난실, 이기숙, 2008)와 남아보다 여아가 사회적 적응성이 높고(정영미, 1996),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당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순형, 김정연, 1997)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영미(1990)도 유아교육기관 또는 일상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비교적 친화적이며, 협력적이라고 하였다.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인문제해결력은 36세 이상 집단보다 35세 이하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인문제해결력은 고절이하 집단보다 전문대졸이상 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박찬옥(1986)의 연구결과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력이 높게 나타난 남정자(1986)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수자(1979; 오화심, 1994, 재인용)는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고 오화심(1994)도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력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가 보다 요구된다.

셋째,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부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지위적 통제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 인성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효능감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명령적 통제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표현력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이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정서표현력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이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우수경, 2005)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학령전 유아들은 주로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정서표현을 관찰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Halberstadt & Eaton, 2002), 부모가 언어적 행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유형인 정서표현성은 모방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유아의 정서에 영향을 주고(Halberstadt, Cassidy Stifer, Parke, & Fox, 1995; McDowell, & Parker, 2000),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untsinger et al., 1998)는 면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에 있어서 명령적 통제수준과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이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위적 통제수준은 부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인성적 통제수준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 명령적 통제수준은 긍정적 또래상호작용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인성 지향적 통제는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능력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한 송수원(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인성지향적

인 통제가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정으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황이나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언어를 사용할 때, 아동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언어통제 유형이 인성 지향적 언어통제를 사용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적이 높게 나타난 김정선(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와의 일상적 언어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각 상황에서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양육효능감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양육효능감에서의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미리(2011)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김미숙, 2005; 최형성, 2005)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연구대상 부모와 직접면접이나 관찰을 통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응답한 질문지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면접이나 관찰 등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 대인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력, 양육효능감, 언어통제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이외의 다양한 환경적 변인의 연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이외의 환경 변인으로 교사, 교육기관의 환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변인들이 포함되는 복잡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난실, 이기숙(2008). 개인적, 환경적 변인에 따른 영아의 또래상호작용 형태, **유아교육학회지**, 28(1), 159-184.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가(1996).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임(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부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200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정(2004). 타인이해를 돕는 주제환상극놀이 활동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자(1986).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박미리(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향숙(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 방식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자녀양육행동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성미영(2006). 유아의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과 유아의 정서성, 정서지식, 사건지식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5), 59-68.
- 손승희(2001).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과 또래 유능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원(2002). 아버지의 언어통제 유형과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정임(2004).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대인문제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제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149-165.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화심(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해결사고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경(2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 연구**, 10(2), 193-211.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민임(2006).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대인문제 해결력과의 인과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재은(2002). 어머니의 언어유형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 사고에 미치는 영향. 배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영(1999).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의사전달형태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미(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4).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2009). 협동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주(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 및 가정의 언어적 환경과 유아의 언어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 가정학회지**, 43(1), 17-33.
- 이영옥(2003).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태도와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각(2009).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 명령적 언어통제유형 및 유아의 정서표현성, 또래유능성간의 경로분석.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경, 신인숙(2004). 친사회적 동화를 통한 소집단토의 활동이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53-271.
- 임규란(2001). 유아에 대한 부와 모의 언어통제 유형 비교.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미영(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언어통제 유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2004). 화합(Unity)주제 가치교육이 유아의 대인관계 사고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경, 박은혜, 김희진(1998). 만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정영미(1996). 유아의 기질과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오미경(199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85-95.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사라(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언어통제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천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희(1992). 어머니의 언어유형과 아동의 타인 사고 추론 능력과의 관계. 중



-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 최혜영(2004).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자, 최윤화(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2, 285-304.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peer rejection. In S. R. A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plin, T. M., Cole P. M., & Zahn-Waxler, C.(2005).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Gender Differences and Relations to child Adjustment. *Emotion, Vol 5(1)*, 80-88.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1994). Preschooler's causal understanding of emotion and its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orsey, S., Klain, K., Forehand,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Halberstadt, A., & Eaton, K. L. (2002). a meta-analysis of family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expressiveness and understanding. *Emotions and Family*, 34, 35-62.
- Jones, D. C., Rickel, A. U., & Smith. R. L. (1980).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s & Social Problem-Solving Strategies Among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1-242.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peer : Relations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277-1287.
- Halberstadt, A., Cassidy, J., Stif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s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untsinger, C. S., Jose, P. E., & Larson, S. L. (1998). Do parent practice to encourage academic competence influence the social adjustment of young European American and Chinese America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47-756.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hillipsen, L. D., Bridges, S. K., McLemore, T. G., & Saponaro, L. A. (1999). Perceptions of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in kindergarten.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4(1), 68-77
- Piaget, J. (1970). *Science of education and psychology of the child*, N. Y : Viking Compass, 175-176.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1998). Peer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619-700). New York: Wiley.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Wadsworth/Tomson Learning.
- Shields, S. A.(2002). *Speaking from the heart: Gender and the social meaning of emo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Zahn-Waxler, C. (2001). The development of empathy, guilt, and internalization of distress: Implications for gender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R. Davidson(Ed), *Anxiety, depression, and emotion: Wisconsin symposium on emotion, Vol. 1*(pp.222-265). New York: Oxford Pres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self-efficacy, verbal control style an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in an attempt to help improve mother's practical parenting style for promoti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ere four to five year-old 212 children from five day care center in J city and their teachers. Teachers were tested by questionnaires and children were interviewed.

There we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mother'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positive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negative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positive peer inter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imperative verbal control pattern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hierarchical verbal control pattern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humanitarian verbal control pattern and positive peer interaction and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mperative verbal control pattern and positive peer interaction.

**Key words** :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self-efficacy,  
ver control style, peer interaction,  
ability to solve interpersonal problem

---

2011. 09. 29. 투고 : 2011. 12. 10. 수정원고접수 : 2011. 12. 15. 최종게재결정